



〈달걀과 닭고기 홍보 방송 내용〉

오승룡의 길따라 노래따라



지난 4월 발생한 HPAI로 양계산물의 소비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비촉진 운동이 진행되었다. 본고는 소비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교통방송(TBN)에서 지난 5월 10일 방송된 오승룡의 〈길 따라 노래 따라(제941회)〉에 달걀과 닭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원문 그대로 소개한 것이다. 이 내용은 본회에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서울이야기〉, 〈길따라 노래 따라〉전문 방송작가인 심상덕 작가가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편집자주-

〈길 따라 노래 따라〉

안녕하십니까? 오승룡입니다.

닭을 키우는 〈양계농가〉들 많입니다. 요즘 그 피해가 이렇 저렇이 아니더라구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뒤로 닭고기 판매가 푹 떨어진 건 물론이고 여기서 또 〈달걀〉 생산 농가들도 그 피해가 엄청날 걸로 알려집니다.

근데 닭고기도 그렇고 오리고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달걀〉도 그렇고 익혀만 먹으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이 참 이상한 것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해서 해가 될 게 없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괜히 먹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아침마다 해먹던 〈달걀 후라이〉도 안 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달걀〉 생산 농가에선 아 그렇잖습니까? 〈달걀〉이 팔려야 많이죠. 〈달걀〉이 그렇다고 해서 양계장에 닭들한테 〈오늘부터는 달걀을 낳지 말아나〉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산

집승이다 보니 사람은 사람대로 먹어야 하고 많입니다.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래저래 손해가 이렇저렇이 아닌겁니다.

지금 오승룡의 길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이 달걀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엔 해도 그랬잖아요? 〈달걀〉은 가장 안전한 식품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달걀〉 하나 아침마다 이 〈달걀〉 하나만 낳로 먹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었거든요.

알뜰이 닭장에서 알을 낳았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닭장에서 꺼내온 그 따듯한 〈달걀〉 집안에 서 가장 어른이신 할아버지만 드실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 〈날달걀〉을 그래운 젓가락으로 〈달걀〉 아랫면에 푹푹 푹 푹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달걀〉 윗면은 여기여기 〈이〉로 이렇게 푹푹 깨뜨려서 이걸 쪽 빨아 드시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저렇게 낱달걀을 먹어보기 위해 <빨리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이런 추억이 있기 때문인 진 몰라두요 지금도 고향마을에 가면 마당에다 나서 기르는 암탉이 방금 낳은 <달걀> 고향집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먹어보고 싶은 게 이 <낱달걀> 인겁니다. 지금도.

그러나 요즘은 그대요. 낳고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 <달걀>도 그 대신 익혀 먹기만 하면 아무 탈이 없다는 겁니다. 익혀먹기만 하면 우리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그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달걀> 이었거든요 <달걀> 그 <달걀 후라이> 이런 정말 부잣집 아이들만 싸볼 수 있는 도시락 반찬이었잖아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이 도시락 반찬 중에서 <달걀 후라이> 싫어 하데요. 이런 걸

그리고 몇 해 전에 덕수궁에서 전시 되었던 <궁중음식전시회> 때 가보니까 인근님의 수라상 제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인맞한 인렇게 조그마한 그릇에 들어있는 <달걀 후라이>처럼 생긴 <수란> 이라는 게 몰라 있더라고요. 근세 이 <수란>이라는 게 뭔가 하연은 <달걀>을 뜨거운 물에다 살짝 익혀낸 것 이게 <수란> 이잖아요?

그 예전엔 인근님 수라상에 오르던 <달걀> 이었던 것 그 <달걀>에 신세가 영 엉망이 돼 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전에 <궁중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했던 <대장군> 이란 드라마 여기에 보면 수라간 상궁들의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상궁> 아니 공주마라개서 그토록 입맛을 잃으셨다니 이를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 공주마라의 입맛을 살리기 위한 특별 음식을 마련해야겠는데 무슨 좋은 생각들이 없겠느냐?

이 때 공주의 입맛을 살리는 특별 음식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새우젓을 넣은 <달걀찜>이었잖아요. <달걀찜>

그토록 <달걀>은 귀하고 귀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 예전엔 인근님 수라상에 빠지지 않고 놓았던 귀하고 귀한 <달걀> 이었던 것 요즘은 아이들조차 <꼬마> <에이> 싫어 이거 나 안 먹으래요. 이 달걀 후라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것도 모자라서 요즘 그 <에이 아이> 때문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완전히 싸구려 음식 <싸구려~싸구려~헛 값에 팝니다요~싸구려~싸구려~>

그대요. 허긴 <달걀> 팔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팔자도 마찮가집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집 사삼이 고향집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달걀> 한 꾸러미 그 중에 보면 껍데기에 닭똥이 묻어있는 <달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달걀>을 삶으면서 다시 한 번 느껴던 것은 우리가 시골에서 사온 <달걀>을 삶으면 <달걀> 껍질이 몇 개는 깨져가지고 흰 자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않고 고향집에서 가져온 <달걀>은 한 개도 깨지지 않는 겁니다. 껍데기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증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건강한 닭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달걀> 이다. 이런 의미 인거죠.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한 병중에든 복을 밝혀놓은 양계장의 닭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알을 낳다보니 그 <달걀> 껍데기가 얇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시골 닭들은 밤에는 잠을 자고 새벽에 해가 뜰 무렵쯤 되면 이 수탉 울음소리만 함께 모두 일어나 모래를 쪼아 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그리고 또 <푸드드드드~> 이렇게 낄갓짓도 해 가면서

그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 먹던 수탉이 <푸드드드드~> 이렇게 낄갓짓을

하면서 초가지붕 위 까지도 이걸 뭐 힌 안들이고도 날아올랐거든요.

그러니 양계장에서 키운 닭 등이 낳는 <알> 하고 시골집 앞마당에서 자란 닭 등이 낳는 <알>하고 그 맛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때요. 그래서 그런지 목라도 고향집 앞마당에서 자란 닭들이 낳는 <달걀>을 낳은 이렇게 툭툭툭 껍질을 깨서 먹던 시절엔 요즘처럼 <조류 인플루엔자>니 뭐니 해가면서 괜히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진 필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어쨌거나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걱정이 많고 양계농가는 양계농가대로 걱정이 많습니대란 <달걀>도 그렇고 닭고기도 그렇고 익혀 먹으면 아무 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난 1974년. 그때요. 양계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집집마다 닭을 키우는 집들이 늘다보니까 당시 서울시에서는 <핸드 마이크>서울 도심에서 닭을 키우면 주변 환경이 불결해 지고 전염병의 온상이 되기 쉬우니 앞으로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십 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닭은 물론이고 소나 돼지를 사육할 수 없으니 시민들은 이를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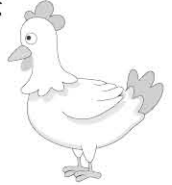
그때요. 지난 1974년. 그 때 까지만 해도 서울 시청 주변 10킬로미터 이내에서 닭이나 소나 돼지를 키우는 집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서울시에선 주택가에서 가축 사육을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었기에 그 이후로 양계산업도 지방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마련됐던 거죠.

<촌>그 얘기하니까 나도 생각나는 구먼 그 시절만 해도 많은 농가에서 닭이나 소나 돼지를 키울 때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았나 말입세. 아 근데 그 1974년 겨울에 갑자기 연탄 폭러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연탄 구매카드였던 것이지 연탄구매카드. 자네 혹시 생각나는가? 인양하게 만든 연탄구입용 황색 카드. 그

걸 동사무소에 갖고 가면 무제한으로 연탄을 공급해줬지 않은 걸 그때? 그 덕분에 병아리 주문량이 부쩍 늘어났었고 말이야)

그때요. 지금 저 양반 얘기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양계장에서 연탄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양계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아이구 그래서 그 때 또 낭패 본 양계농가도 많았었고 말입니다.

이 양계장 하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결코!



이것도 벌써 한 20년 얘긴데요.

지난 1986년 당시 양계협회에선 닭과 <달걀>의 소비를 더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홍보 포어를 현상공모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일등을 했던 포어가 뭔지 아십니까? <알 먹고 키 자랑~ 닭 먹고 힌 자랑~> 이 포어가 일등으로 당선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고기도 많이 먹고 <달걀>도 많이많이 먹자 이거예요. 그래야 <알 먹고 키 자랑 닭 먹고 힌 자랑>

특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키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힌도 부쩍부쩍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닭을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 했었느냐 이거죠. 지난 197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대란 그 때 <경주 천마총>에서 천 오백여년 전의 <달걀>이 출토 됐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고유의 닭이 그 옛날 옛날부터도 있어왔던 겁니다. 이 나라에.

그리고 대대로 우리 조상들은 닭과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는 걸 이걸 어떻게 확인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그 때 고구려 시조 말입니다.

그 <동명성왕>이나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가야의 시조 <수로왕> 또 경주 김씨 시조 <김알지>, 신라 4대 왕 <석탈해>가 그때요. 모두 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긴데요 고구려나 신라의 시조처럼 그렇게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거 이 <달걀> 닭고기도 많이 많이 먹고 <달걀>도 많이 많이 먹자 이겁니다. 제발

전에는 그랬습니다. 오전 시간에 대방에 들어가면 <따담>어서 오세요 오 사장님 멕스 깁 여기 오 사장님 오셨다 모닝커피 내올 때 달걀 큰 걸 큰 넣어가지고 나왔요)

그대요. 지난 70년대말 해도 <모닝커피>

그 시절의 <모닝커피>는 뜨거운 커피 잔에 <달걀 노른자>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대방에 큰 서비스 중에 하나였던 거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엔 대방에서 <에그> 라고 해 가지고 <달걀> 삶은 거 하나를 찻잔 속에 넣어 이걸 아침식사 안한 손님들에게 팔기도 했었고 말입니다.

<따담>아니 오 사장님은 젊은 시절에 뭐 하셨기에 해팅에 나가서 그렇게 성공을 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대?)

<사장>나? 내가 바쁜 병아리 감별사 기술을 배워 외국에 나갔다가 성공하고 돌아 온 사람이라네. 그 시절 말해도 내 이 손이 이렇게 병아리 문에 살짝 달기만 하면 그 병아리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걸 구분...

<따담>어머머머 아니 왜 이러세요. 전젊은 분이 아이구 오늘 새로 입고 나온 치마 어머머머 여기 손 때 묻는 거야 이거) 가랴 가랴 지금 저 전젊치 못한 오사장 때문에 가랴있자 나 무슨 얘기하다가...

그대요. <달걀> 얘기. 근데 전에는 <달걀> 중에서 <삶은 달걀> 특히 어디 기차여행 할 때 그 삶은 열차에서 사먹던 <삶은 달걀> 그 시절엔 그 맛이 왜 그렇게 좋았었는지 말입니다.

전에는요 <달걀 한 꾸러미> 그 <달걀 한 꾸러미>가 선물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이었잖아요? 그 <달걀 한 꾸러미> 속에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었던 거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전의 이런 순수한 마음 그대로 어디 가서 또 다시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되찾을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대요. 그건 그렇고 오늘 이렇게 <달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계 챔피언이 됐던 권투의 <김기수> 선수 팟자집에서 어렵게 살던 시절에 마친 그날 권투 시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내는 <김기수 선수>의 그 뺑상위에 <달걀> 이라도 하나 더 올려놓고 싶지 않았겠느냐 이거요. 근데 청없는 딸아이가

<꼬마>엄마 엄마! 나도 저 달걀 먹고 싶어 영영 영영 나도 달걀 먹으려야 달걀)

그러니 <김기수>는 그 <달걀>이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 <달걀>을 내가 먹어야 내가 먹고 나가야 오는 권투 시합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더 쓸 수 있을 테니까. 그 때 어린 딸 앞에서 그 <달걀>을 삼키면서 <김기수>는 속으로 얼마나 울었었는데요.

<아버지가 이 달걀 먹고 힘을 내야 너희도 더 잘 살 수 있다> 이 한마디가 멀거음이 돼서 나중에 결국 세계 챔피언도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김기수 선수>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유준 <에이 아이>

<조슈 인플루엔자> 때문에 가슴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 우리 양계농가들 자식들 앞에서 끝까지 눈물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 내고 우리도 끝내는 챔피언이 되자구요. 챔피언이!

턱푸덕 주저앉기 직전인 양계농가들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달걀 삶은 거 하나라도 더 먹어 주자구요. 우리가!

(신상덕 작가 전화번호 : 011-233-4413)

